통신서비스 Week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3.9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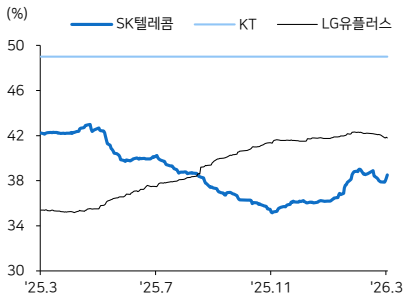
통신/우주/미디어 Analyst 정지수 jisoo.jeong@meritz.co.kr
RA 박건영 geonyoung@meritz.co.kr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KOSPI	-11.5	5.4	34.8	71.3	9.2	7.8	1.6	1.4	1.3	1.5
통신업종	-9.2	0.7	20.9	21.9	11.0	10.2	0.9	0.9	4.4	4.6
SK텔레콤	-7.9	7.5	40.0	39.7	14.1	13.0	1.3	1.2	4.5	4.6
KT	-8.7	4.4	13.7	11.1	9.6	8.9	0.8	0.8	4.3	4.6
LG유플러스	-15.4	-3.4	-1.2	4.3	8.7	8.1	0.7	0.7	4.7	5.0
AT&T	2.2	5.6	15.3	-0.9	12.5	11.3	1.7	1.6	3.9	3.9
Verizon	2.0	10.4	23.8	18.0	10.4	9.8	2.0	1.8	5.5	5.8
T-Mobile	2.1	12.2	8.4	-8.8	20.9	16.3	4.3	4.2	1.9	2.1
NTT	-1.4	-0.9	-2.1	-4.8	12.2	11.6	1.3	1.2	3.5	3.5
KDDI	-0.1	-4.7	-0.4	6.2	13.8	12.8	2.0	1.8	3.0	3.2
Softbank	-4.0	-1.8	-15.8	-1.0	8.2	17.6	1.5	1.3	0.3	0.3
China Mobile	-0.4	-1.6	-8.4	-7.8	10.5	10.2	1.1	1.0	7.0	7.4
China Unicom	3.8	7.4	-10.4	-18.1	9.9	9.9	0.6	0.6	6.5	7.0
China Telecom	2.4	0.6	-11.5	-11.1	11.9	11.6	0.9	0.9	6.2	6.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8.5% (+0.6%p WoW, -0.2%p MoM)
KT 49.0% (-0.0%p WoW, -0.0%p MoM)
LGU+ 41.8% (-0.3%p WoW, -0.5%p MoM)
SKT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3월 첫째 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3%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AST Spacemobile은 4Q25 조정 EPS -0.26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19달러)를 소폭 하회
KT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로 2월 번호이동 건수는 52만건(-47.9% MoM) 기록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외국인은 SKT 순매수,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과기정통부는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 2026년 내 대규모 실증사업 개시 및 융합서비스 발굴 계획
스타링크는 2027년부터 스타십을 통해 2세대 위성을 구축할 예정이며, 5G 수준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목표
2030년 6G 표준 확립을 앞두고 엔비디아, 퀄컴, 중국을 축으로 기술 경쟁에 진입, 유럽은 법체계 마련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MWC 2026	3 AST Spacemobile 4Q25 실적발표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주간 뉴스

▶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초대 의장사 KT (ZDNET Korea)

- 과기정통부는 MWC 2026에서 차세대 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
-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 초대 의장은 KT 네트워크 부문장, 운영위원장은 김동규 교수 발탁
- 2026년 과기정통부는 AI 네트워크 대규모 실증사업을 개시하고 융합서비스를 선제 발굴할 계획
⇒ AINA는 6G 표준 완성과 상용화 등 네트워크 진화에 맞춰 차세대 이동통신 M/S 20% 달성 목표
⇒ 이를 위해 산업계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수요 창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할 예정

▶ 6G 표준 선점하라… 엔비디아·퀄컴·中 3파전 (이데일리)

- 2030년 6G 표준 확립을 앞두고 글로벌 통신 주도권 경쟁이 연합체간 블록 대결 구도로 재편
- 엔비디아는 통신망을 GPU 기반 AI 인프라로 전환할 계획. SKT, 에릭슨 등과 'AI-RAN' 동맹 출범
- 퀄컴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하드웨어 기업들과 연합해 6G 활용 기기의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전략
⇒ 중국은 '모바일 AI 혁신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저궤도 위성과 지상망 결합, 5G-A 실행 계획 발표
⇒ 한편, 유럽연합은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앞세워 통신 규범을 통합한 단일 법체계를 공식 제안

▶ D2D 위성 서비스 확산…GSMA "새 규제 접근 필요" (디지털데일리)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저궤도 위성 D2D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
- '위성 서비스 규제 준비'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 현재가 규제 체계를 정비할 최적 시점이라 강조
- 위성 사업자의 직접 서비스 모델 등장에 따라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분석
⇒ 위성 서비스가 아직 초기 확산 단계에 있는 만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설명
⇒ 규제 원칙으로 투명성, 형평성, 산업·정부 간 협력, 혁신과 규제 균형 등 다섯 가지를 제시

▶ 속도 혁신 재확인한 스페이스X "스타링크, 내년 중 5G 수준 속도 내겠다" (한국경제)

- 스타링크는 MWC 2026에서 본격적으로 5G 수준의 속도를 내는 우주 통신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
- '27년부터 스타십을 통해 2세대 위성을 발사해 1세대 대비 성능 20배, 데이터 밀도 100배 상향 전망
- 스타십은 50기가 넘는 2세대 위성을 궤도에 수송할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2세대 네트워크 구축 가능
⇒ 스페이스X는 유럽 전역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
⇒ 통신 격차 해결을 위해 지상 기지국과 위성망이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확인

▶ '위약금 면제 특수' 끝…2월 번호이동 반토막 (아이뉴스24)

- 1월 KT 위약금 면제 조치로 증가했던 번호이동 수요가 꺾이며 2월 번호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2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2만건으로 1월 대비 -47.9% 감소
- SKT는 -66.2%, KT는 -45.9%, LGU+는 -54.4% 감소했으며, MVNO 역시 -28.6% 감소
⇒ KT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며 1월 번호이동 수요 선반영 영향 존재
⇒ 갤럭시 신규 단말 사전 판매량이 135만대를 기록하는 등 3월은 2월보다 활성화될 전망

▶ T-Mobile CEO shoots down the prospect of an MVNO… (Fierce Network)

- T-Mobile은 동사가 스타링크와 협력해 MVNO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
- T-Mobile 측은 추가적인 시장 규모를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MVNO 사업에 진출할 계획
- 이어서 D2D 위성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술이라 대답하며, 이 분야를 개척했다고 평가
⇒ 고객들이 긴급 위성 문자 메시지 기능을 '보험'처럼 좋아해, 사용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발언
⇒ 한편, 스타링크는 에코스타로부터 매입한 주파수를 활용한 D2C 위성 네트워크를 강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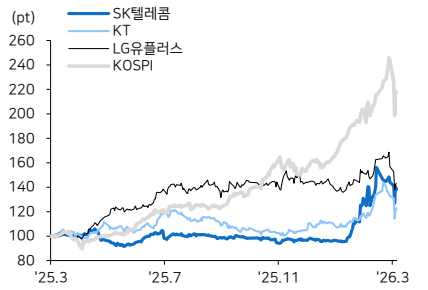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한국	SK텔레콤	75,600	10.9	11.9	12.1	1.2	1.3	0.8	0.8	3.6	3.6	4.7	4.7	9.5	9.9
	KT	59,000	10.0	18.8	19.2	1.5	1.6	1.0	1.1	4.1	4.2	3.9	3.8	8.5	8.7
	LG유플러스	15,070	4.4	10.6	10.8	0.8	0.8	0.5	0.5	2.6	2.6	3.2	3.1	8.1	8.3
미국	AT&T	28.6	200.5	128.4	131.1	27.5	29.6	16.6	17.3	48.0	49.8	7.0	6.8	13.6	14.4
	Verizon	51.1	215.6	144.1	145.8	33.5	34.9	20.5	21.4	53.0	54.5	6.7	6.5	19.0	19.4
	T-Mobile	221.6	244.1	94.6	98.9	20.1	24.1	11.6	14.3	37.2	40.4	8.9	8.2	21.1	27.1
일본	NTT	151	86.7	90.3	93.2	10.8	11.2	6.5	6.8	21.6	22.3	8.4	8.2	10.2	10.8
	KDDI	2,669	70.8	39.3	40.7	7.5	7.9	4.8	5.0	12.1	12.5	8.0	7.8	14.3	14.5
	Softbank	3,926	142.1	49.4	52.2	45.6	16.9	20.3	8.6	41.7	19.4	6.9	14.9	22.2	11.2
중국	China Mobile	79.0	222.0	152.9	155.7	23.1	24.2	21.4	22.3	50.2	51.0	3.9	3.8	10.2	10.2
	China Unicom	7.8	30.7	57.4	58.5	2.8	3.0	3.2	3.3	14.5	14.7	1.9	1.9	5.9	5.9
	China Telecom	5.1	76.2	77.6	79.1	6.3	6.8	5.2	5.6	21.4	22.3	3.2	3.1	7.4	7.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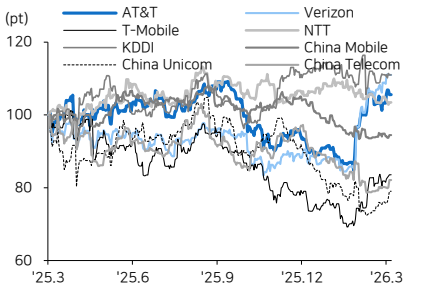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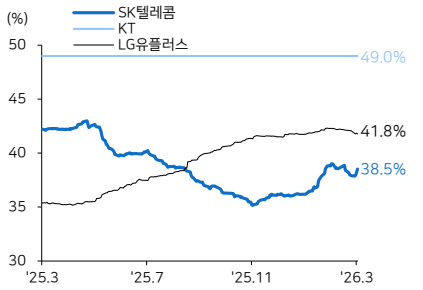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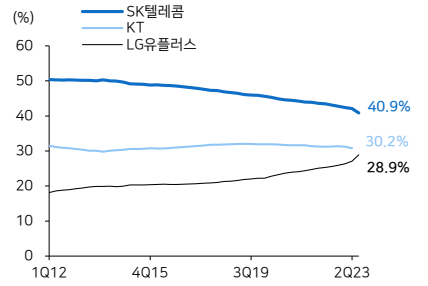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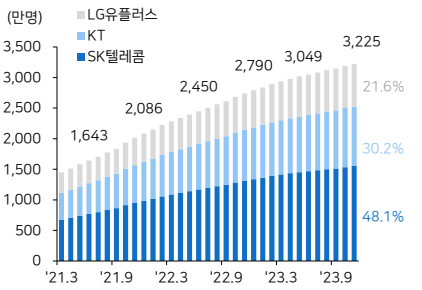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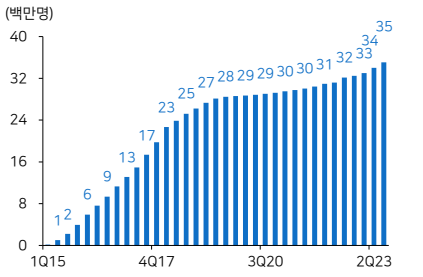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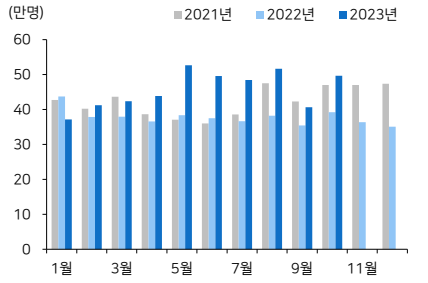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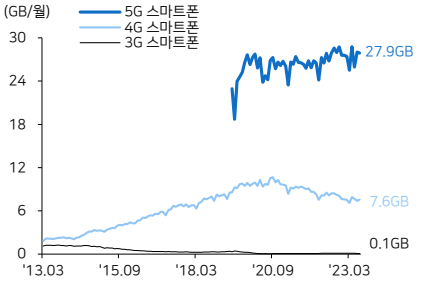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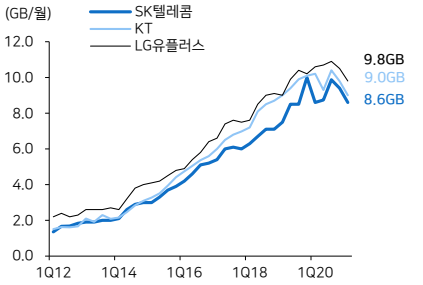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